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Vale's 'mantra' is music to bulkers' ears: 450m tonnes of iron ore by 2022

브라질의 광산업체 Vale이 댐붕괴 참사 2년만에 원대한 목표를 발표했다고 보도됨. 2022년말까지 철광석 생산량 목표를 연간 4.50억톤으로 설정했다고 보도됨. 2021년 연간 생산량은 3.55억톤 수준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Seaspan Corp mulls extending containership order spree by another \$1.46bn

Seaspan Corp가 컨테이너선대 확충을 지속한다고 보도됨. 지난 12월 이후 37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으며 총 계약규모는 46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Seaspan은 추가로 7,0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20척의 확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계약규모는 14.6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TradeWinds)

Spot and short-term LNG deliveries surge in 2020, GIIGNL says

GIIGNL(International Group of LNG Importers)에 따르면, 2020년 LNG 해상운송 물량 중 단기계약 또는 스팟으로 운송된 물량이 전체의 교역량의 40%를 차지했다고 보도됨. 단기&스팟 LNG 물량은 2,350만톤증가하면서 연간 1억 4,250만톤으로 증가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모로코, FSRU 입찰 시동

모로코가 FSRU 개발, 설계, 자금조달, 건조, 운영, 유지 관리를 책임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 진행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FSRU 가동 시기는 2025년, 입찰 서류 제출은 5월 31일까지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대형선 슬롯 품절

일류 대형 조선사들이 대형선을 수주할 수 있는 슬롯이 동이 났다고 보도됨. QatarGas가 대형 조선소들의 슬롯을 입도선매한 데다 지난 8개월 간 극동지역 조선사들이 대형 선박을 대량 수주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Banchemo Costa에 따르면 2021년 1분기는 2008년 이후 분기 최대 발주량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그룹, 9개사에 ESG위원회 설치...ESG경영 '속도'

현대중공업그룹이 그룹 ESG(환경·사회·지배구조)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총 9개 계열사에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도됨. 또한 CSO(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로 구성된 '그룹 ESG협의체'를 구성해 그룹 차원의 주요 ESG정책과 적용 방법, 현안 등을 논의하고, 각사의 ESG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